

국회의원(강대식 등 45인) 제명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1837
----------	-------

발의연월일 : 2025. 7. 30.

발 의 자 : 박찬대 · 이훈기 · 김우영

조계원 · 노종면 · 김한규

서미화 · 박성준 · 김문수

문금주 · 허종식 · 윤종균

박 정 · 이광희 · 안태준

박주민 · 권향엽 · 김기표

김동아 · 김용민 · 김승원

박정현 · 맹성규 · 박용갑

박민규 · 이병진 · 이용우

이재강 · 김태선 · 장철민

장종태 · 이연희 · 이해식

이재관 · 이주희 · 조인철

김주영 · 민병덕 · 임미애

허성무 · 전진숙 · 김남희

김준혁 · 권칠승 · 전용기

의원(45인)

주 문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
자로서 「헌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
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원칙에 따르고, 동

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동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구자근·권영진·김기현·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종양·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성훈·박준태·박충권·서일준·서천호·송언석·엄태영·유상범·윤상현·이달희·이상휘·이만희·이인선·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조배숙·조은희·조지연·정동만·정점식·최수진·최은석(45인)은 2025년 1월 6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저지하였음.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원 강대식 등 45인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반(反)헌정 범죄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이들 국회의원 45인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함.

제안이유

가. 국회의원 강대식 등 45인은 2025년 1월 6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결하여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저지하였음. 이는 사법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87조(내란), 제91조(국헌문란) 위반에 해당하며, 내란수괴를 비호하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반(反)헌정 행위임. 국민들은 지난 탄핵과정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물리력으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모습을 생생히 지켜보았음. 현직 국회의원이 이러한 불법 폭력 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은 국민의 대표자가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정질서를 짓밟고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한 것으로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음.

나. 강대식 등 45인의 반(反)헌정 활동은 국회의원 제명과 함께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할 중대한 사안임. 국민의 대표자가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정질서를 짓밟고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한 것으로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음.

다. 이러한 행태를 종합할 때, 국회의원 강대식 등 45인은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46조를 위반하였으며, 「형법」 제87조(내란),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1조(국헌문란),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를 위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는 품위뿐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음.

이에 국회의원으로서는 품위와 국회의 명예·권위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국회의원 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구자근·권영진·김기현·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종양·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성훈·박준태·박충권·서일준·서천호·송언석·엄태영·유상범·윤상현·이달희·이상휘·이만희·이인선·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조배숙·조은희·조지연·정동만·정점식·최수진·최은석(45인)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함.